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의 타당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  
: 광주양림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오대호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 2023 Daeho Oh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A STUDY ON THE VALIDITY AND DIRECTION OF ONLINE WORSHIP IN THE COVID-19 ERA : FOCUSING ON THE CASE OF GWANJU YANGRIM CHURCH**

Daeho Oh

Gwangju Yangrim Church, Gwangju

A church must understand the flow of the times. This does not mean following trends. We must understand what the current era demands and move forward with those changes. The digital civilization of our time is rapidly advancing, and we are living in a new world every day. The digital civilization has become a part of our lives beyond just utilizing the internet. While the world continues to develop and change, church culture remains stagnant. The church that used to lead culture is now falling behind culture. The church must be able to worship anytime, anywhere, and in any way. To do so, efforts must be made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times.

Perhaps the Korean church has hindered 'worship of life' by placing restrictions on the church as a physical location. Online worship and ministry carried out due to COVID-19 has transformed the faith of believers from a spatial concept of "church" to a focus on the heart. Ministry carried out in the church has also changed to allow for coexistence between the physical and online realms. In the process of these changes, many pastors were concerned about the weakening of their understanding of worship. However, the essence of worship is what is important. The form has always been subject

to change within the limits of preserving the essence. Ministry based on online platforms does not disrupt the essence of worship but changes the form. However, online ministry is not a perfect alternative. We have faced difficulties and experienced limitations in conducting online ministry. It is not enough to promote believers' faith growth through online ministry alone.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physical and online realms is necessa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ssence of worship and aim to answer the question, 'Is online worship really appropriate in this era?' through an online-based worship and ministry conducted at Gwangju Yangrim Church.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guide for churches and pastors who are considering online ministry.

## 국문초록

###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의 타당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

: 광주양림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오대호

광주양림교회, 광주광역시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야 한다. 유행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디지털 문명은 단순히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해가는데 교회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예전에는 문화를 이끌어왔던 교회가 이제는 문화에 뒤쳐져 있다.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교회라는 장소에 제약을 두고 삶의 예배를 막아왔다. 코로나 19로 인해 진행된 온라인 예배와 사역은 성도들의 신앙을 '교회'라는 장소적인 개념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뤄지는 사역도 현장 중심에서 현장과 온라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약화될까 고민하였다. 중요한 것은 예배

의 본질이다. 형태는 본질이 손상되지 않은 범위에서 언제든지 변화되어 왔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역은 예배의 본질을 흐트러트리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사역이 완벽한 대안이 아니다. 온라인 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어려움에 직면해왔고, 한계점도 경험하였다. 온라인 사역만으로는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다. 현장과 온라인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광주양림교회에서 진행했던 온라인 기반의 예배와 사역들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옳은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고자 했다. 본 논문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온라인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기대해본다.

## 목 차

표목차 .....	vii
그림목차 .....	viii
감사의 글 .....	ix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2
II. 예배란 무엇인가? .....	4
1. 예배의 정의 .....	4
2. 예배의 형식 .....	17
3. 예배의 기능 .....	27
III. 온라인 예배 .....	37
1. 코로나 시대 변화된 예배 인식 .....	38
2. 온라인 예배의 유용성 .....	42
3. 온라인 예배의 부정적인 측면 .....	45
4. 온라인 예배에 나타난 문제 해결 방안 .....	50
IV.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 사례 .....	58
1. 예배 사례 .....	58
2. 목양 사례 .....	64
3. 교육 사례 .....	69
V. 평가 .....	73

1. 긍정적 측면 .....	73
2. 부정적 측면 .....	75
VI. 나가는 말 .....	77
참고문헌 .....	81

## 표 목차

<표1> 광주양림교회(통합) 23년 1월 1일자 주일예배순서 .....	18
<표2> 2020년 2월 23일 주일예배(온라인예배) 큐시트 .....	57

## 그림 목차

<그림 1> 코로나 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	37
<그림 2>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 .....	37
<그림 3>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여부 .....	39
<그림 4>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가나안 성도) .....	52
<그림 5> 2021년 추석명절 목회자 인사 .....	59
<그림 6> 2020년 3월 22일 주일예배(영상예배) 준비안내 화면 .....	60
<그림 7> 2021년 1월 31일 유치부예배(영상예배) 공과공부 화면 .....	61
<그림 8> 2021년 9월 27일 청년부예배(영상예배) 소그룹 안내 화면 .....	61
<그림 9> 고난주간 라이브방송(세족식) .....	62
<그림 10> 비대면 성찬식 성찬 키트 .....	63
<그림 11> '힐링캠프' 방송 화면 중에서(코로나 시기 성도들의 고민 나눔) .....	64
<그림 12> 찾아가는 심방 화면 중에서(성도 사업체 방문) .....	64
<그림 13> 목요특별방송 '사목사목' 썸네일 .....	65
<그림 14> 유치부 심방프로그램 '붕붕TV' .....	66
<그림 15> 유년부 심방프로그램 '양림메이트' .....	67
<그림 16> 청년부 심방프로그램 '양림여호수아 숏터뷰' .....	68
<그림 17> 성경BT 썸네일 .....	68
<그림 18> 'BTS' 참가 신청서 .....	70
<그림 19> 교육부서 'BTS' 줌(zoom) 활동 장면 .....	71

## 감사의 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체육교사라는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만 같고 눈물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목회자의 꿈을 꾸게 하셨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선하심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타이밍으로 저를 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바쁜 교회 사역 가운데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현준 위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배려 또한 아끼지 않은 광주양림교회 당회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조병호 박사님, 논문 쓰기가 막막해 포기하고 싶은 순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주시고 열정을 다해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신 김영래 박사님, 성경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해주신 레너드 스윗 박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로, 후원자로 내조해 준 사랑하는 아내 김성심 사모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빠의 든든한 비타민 역할을 해준 사랑하는 첫째 주찬이와 둘째 주연이, 셋째 주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사랑하는 부모님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3년 3월

오 대 호

## 제 I 장

### 서론

#### 1. 연구의 목적

지난 2020년, 코로나 19 호흡기 감염병이 한국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모든 기관이나 시설들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비대면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정책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들을 조정하였고, 모든 모임과 행사들은 취소되었다. 이때 교회에서 대두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배였다. 인원 제한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예배는 모이는 예배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거리유지가 시작된 2020년 초반 많은 교회들이 제한적 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각자의 가정과 개별적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예배에 참여해야만 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은 아니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멈추거나, 방역지침을 어기고 현장예배를 고수해야만 했다. 그러다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교회가 대면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다. 이때 가장 많이 문제되었던 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교회 역사상 전염병이 창궐하여 모이는 것이 위험했을 때, 교회들은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코로나 이전 이미 비대면 예배가 있었고, 그것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코로나 19로 인해 본격화된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도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해봄으로 온라인 예배의 타당성과 보안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을 통해 먼저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며, 예배를 연구한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정의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예배의 형식을 살펴봄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배자를 부르시고, 예배자는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예배자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야 하는 것임을 살펴본다. 또한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배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예배자의 마음에 의해 진정한 예배가 드러지는 것임을 살펴본다.

또한 온라인 예배가 무엇이며, 온라인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 이제까지 교회라는 건물에 국한된 예배의 개념이 변화되어야 함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난 몇년간 진행하면서 경험한 온라인 기반의 사역이 갖는

한계점을 알아봄으로, 한계점에 멈춰설 것이 아니라 그 한계점을 철저히 보안하여 새로운 선교의 현장으로서 온라인 사역을 진행해야 함을 살펴본다.

그리고 광주양림교회에서 진행된 온라인 사역을 통해 사역의 범위를 현장에서 벗어나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디서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성찬식을 포함하여 예배와 목양사역, 그리고 장년부와 교회학교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변화되는 시대에 맞추어 성도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면서 느끼게 된 장단점을 살펴봄으로 앞으로 교회와 목회자가 나아갈 방향을 분석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 제 II 장

### 예배란 무엇인가?

#### 1. 예배의 정의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없이 많은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공적인 예배 외에도 수많은 예배를 참여하고 드리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하나님과의 만남’ 정도로 대답한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무엇을 위해 예배드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예배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특히 코로나 19의 여파로 예배의 모습과 형태가 바뀌어가는 지금,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모르는 난파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예배의 정의함에 있어 ‘성경’ 안에서의 예배 정의, ‘예배학자’ 들의 예배 정의라는 두 가지 통로로 예배의 정의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 1) 성경 안에서의 예배 정의

예배란 무엇인가? 언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예배(Worshop)란 원래 앵글로색슨(Anglosaxon) 어(語) “Weorthseice” 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세기 영어 Worschipe(Worth-Shipe)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은 가치(Worth)라는 말과 신분(Ship)이란 말의 뜻을 가진 복합명사로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 라는 뜻을 해석된다. 다시 말해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이란 뜻이다.<sup>1</sup> 앤드류 힐은 “Worship” 이라는 단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다.

히브리어원 DRS(darash)는 영어로는 ‘Worship’ 이 된다. 그러나 종종 이 용어는 추구하다, ‘찾다’ (seek)혹은 ‘묻다’ (inquire)로 번역된다. 이 단어는 간구하는 자의 편에서의 개인적인 갈망과 가슴에서 우러나온 의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예배를 위한 함축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진정한 예배는 의무나 책임에서가 아니라, 그의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자유롭고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탐색이다.<sup>2</sup>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sup>1</sup>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1999), 17.

<sup>2</sup> Andrew Hill, *Enter His Courts With Praise* (Eastbourne: Kingsway Publication, 1998), 32-33.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사 43:21)<sup>3</sup>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통해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에 평온이나, 심신의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예배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과 그 뜻에 대한 반응이다.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이다.<sup>4</sup>(창 6:5~7) 이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심판을 준비하게 하신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상을 깨끗케 하시기 위해 큰 비를 내리시고,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가족들만이 심판을 면하게 된다. 지면에 물이 건히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신다.<sup>5</sup>(창 8:17)

노아는 방주에서 내린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sup>3</sup> 이사야 43장 21절 -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sup>4</sup> 창세기 6:5-7,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sup>5</sup> 창세기 8: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신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제사를 통해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보이신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부합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다시금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이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셔서 맺으신 언약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 하시고 맺어지는 언약관계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영적 훈련의 장’인 것이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원치 않으시는 예배의 모습들이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누군가는 아벨은 처음 태어난 짐승의 피를 바쳤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왜냐면 가인의 예배는 히브리인의 제사 형식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6</sup>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예배의 태도 때문이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정성껏 제물을

<sup>6</sup> 레위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번제와 소제의 방법. 번제는 희생 제물을 가죽만 빼고 모조리 불에 태워 그 향기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레1:2-9). 제사 행위의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춘 제사 곧 '온전한 제사'라 할 수 있다. 번제단에서 드러졌다 하여 '번제'라고 한다. (교회용어사전 : 교회 일상, 2013. 9. 16., 가스펠서브)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로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 놓고 드리는 제사(레 7:12-13). 번제가 헌신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소제는 노동의 열매를 드린 데서 행위의 성별을 상징했다(시 20:3). 특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와 죄 없으신 예수께서 자신을 온전히 대속제물로 드린 거룩한 희생을 상징한다. 한편 이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로서 곡물 제사이다. 또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이다. (라이프성경사전, 2006. 8. 15., 가스펠서브)

드린 반면, 가인은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었을 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sup>7</sup>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인 것이다.

### (1) 구약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

구약에 기록된 예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예배’ 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형식이나 의미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구약에 기록된 예배의 정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는, 봉사 또는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אָבַח(아바드, abhadh)이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120회 이상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단어이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육체 노동으로 ‘토지를 경적하는 것’ 이나 ‘주인을 섬기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희생의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것’ (출 7:16 ; 10:7 ; 민 4:37)<sup>8</sup>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예배자가 섬기는 대상을 향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그 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한다. 이 단어는 주로 제물을 드릴 때,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때 주로 사용한다.

둘째는, 엮드린다, 굴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שָׁחָה(샤하아, shachah)이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23회 등장하며, 주로 ‘육체적인 겸손의

<sup>7</sup> 박은규, 『21세기의 예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20-21.

<sup>8</sup>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 출애굽기』 (서울: 제자원, 2006), 354.

자세' 나 '물질적인 희생으로서의 봉사 행위' 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나 삶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자가 갖춰야 할 육체적 표현을 의미하며, 겸손의 자세로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한다.<sup>9</sup>

셋째는, 위엄, 장엄, 권위, 영광, 존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ext{קָבוֹד}$ (카보드, kabod)이다. 이 단어는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을 뜻하고 있다. 에스겔 1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이 환상 중에 본 사방 광채의 모양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sup>10</sup>

레위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사의 종류가 등장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다. 각 제사의 형식과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다. 이 번제는 생명이 있는 짐승을 통해 자신의 죄를 대속받는 의미로 생명을 헌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제는 곡식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 구워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산을 바치는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이다.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과 갈, 콩팥 등만을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자가 함께 나눠 먹는 형식의 제사이다.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제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다.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로 제물을 가져온 자가 제물에 안수한 후,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 제사이다. 마지막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해를 가했을 때, 해를 가한 제물에 5분의

<sup>9</sup> 문희석, 『하나님의구속역사』 (서울: 보이스사, 1973), 185.

<sup>10</sup> 에스겔 1:28,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1을 더해 바치거나 배상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제사이다. 이 다섯 가지의 제사에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제사자(예배자)로 서는 것이다.<sup>11</sup>

앞에서 말했던 구약에는 예배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의 단어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예배란, 예배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배의 주인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를 통해, 자신의 기준이 앞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살펴볼 수 있다.

## (2) 신약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

신약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구약에 나타난 제사와 형식만 달라졌을 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장을 통해 드려진 것이라면, 신약에 나타난 예배는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로 완성된다. 신약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자가 성전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sup>12</sup> 예배에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며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sup>11</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58.

<sup>12</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65.

첫째는, 예배하다, 절하다, 부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προσκύβω(프로스쿠네오, proskuneo)이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59회나 사용될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예배를 뜻하고 있다.<sup>13</sup> 이는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뜻을 담아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섬김,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λατρεία(라트레이아, latreia)이다. 이 단어는 ‘지위가 높은 자에 대한 봉사’를 뜻하는 단어로 주로 하인이 주인을 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오늘 날 목회자들을 일컬어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단어에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다.(롬9:4, 히9:1 ; 12:8)<sup>14</sup>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예배자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는, 존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σεβόμαι(세보마이, sebomai)이다. 이 단어는 존경하는 자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 세상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 된 우리가 존경의 뜻을 담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의 그릇된 예배를 지적하며 그들이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신다.<sup>15</sup>

신약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주체가 제사장에서 예배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구약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반면,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배자가 직접

<sup>13</sup> 김소영, 『현대예배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44.

<sup>14</sup> 정장복, 『예배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1999), 31.

<sup>15</sup> 마태복음 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는 레위기 9장을 기반으로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 이후, 약 1,500여 년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산제물로 드리짐을 통해 나타난 변화이다.<sup>16</sup>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단어들을 통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가 구약보다 예배의 대상을 향한 경의를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배의 대상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따라서 예배자들이 행할 예배의 모습 또한 구체화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배를 비추어 보았을 때,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만남이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들에게 허락된 사죄의 은총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과도 같은 것이다.

## 2) 예배학자들의 예배 정의

앞에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해 정의했다면, 다음으로는 예배학자들이 말하는 예배에 대하여 살펴봄으로 예배가 가진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예배학자 화이트는 예배학자들이 주장하는 예배의 정의를 통해 목회자는 물론, 성도에게도 예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해석하고 반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7</sup>

<sup>16</sup> 조병호, 『통하는 레위기』 (서울: 통독원, 2018), 20-21.

<sup>17</sup> 제임스 F. 화이트, 『기독교 예배학 입문』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0), 24.

1544년 토르가우 성(Torgau Castle)의 헌당예배에서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설교를 통해 이렇게 예배를 정의한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rede),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말하는(reden) 것,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sup>18</sup> 예배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자,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기도,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에 따른 결단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배이다.

러시아 정교회의 신학자인 조지 플로로브스키(George Florovsky)는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 속에서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정의하며 “예배는 본질적으로 찬양과 경배의 행위인데, 이 행위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속의 자애에 대한 감사도 함축한다.”<sup>19</sup>고 정의한다. 즉, 예배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담고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인 것이다.

예배학자인 폴 훈(Poul W. Hoon)의 정의에 따르면 예배란, “기독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배의 의미 분석도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훈이 말하는 기독론적 예배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sup>20</sup> 이는 예배란 구속사의

<sup>18</sup> Peter Brunner, *Worship in the Name Of Jesus* (St. Louis: Concordia, 1968), 123에서 재인용(WA 49, 588, 15~18).

<sup>19</sup> G. Florovsky, *Worship and Ever-Day Life: An Eastern Orthodox View*, *Studia Liturgica* 2, p.268, 269, 1963; White, F. James,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3rd ed), 김상구, 배영민 역, 기독교 예배학 개론(제3판), 기독교문서선교회, 32, 33, 2017에서 재인용.

<sup>20</sup> Paul W. Hoon, *The Integrity of Worship*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1971), 77.

사건과 직결된 것으로 예배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우리와 연결하고 현재로 적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훈은 “예배의 핵심은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어 그 생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예배는 우리의 삶인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회복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더 나아가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 라고 주장한다.<sup>21</sup>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찬양과 기도, 봉헌 등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예배학 교수인 로버트 웨버(R. E. Webber)의 책(Worship-Old and New)에서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만남”(Meeting between God and His people)이라고 정의한다.<sup>22</sup> 그가 말하는 만남이란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전해져왔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이야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sup>21</sup> Ibid, 24-25.

<sup>22</sup> 로버트 E. 웨버, 『예배학(Worship-Old and New)』 김지찬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8.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sup>23</sup>

계속해서 웨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노래하고 선포하고 실행하며 구현하는 것”<sup>24</sup>이라고 정의함으로 예배는 그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는 것임으로 말하고 있다. 이 만남은 일회성의 만남이 아닌 삶의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이뤄질 영원한 만남이다.

20세기 정교회의 예배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Alexander Schumemann)은 “인간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Man is what he eats)라는 유물론 철학자 포이어바흐(Ludwing Andreas von Feuerbach)의 인간 정의를 빌려 예배자로서의 인간을 정의하고 있다.<sup>25</sup> 그에 따르면, “우주 안에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점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음식과 생명에 대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 찬양으로 응답하는 존재다.”<sup>26</sup> 그의 주장처럼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슈메만은 “사람들이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 이상의 무엇이 되도록 해주는 공동의 활동, 또는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사역’ ”이라는

<sup>23</sup> 로버트 E. 웨버, 『예배학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의 구현)』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1), 20-21.

<sup>24</sup> Ibid, 46.

<sup>25</sup> 알렉산더 슈메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이종태 옮김 (서울: 복 있는 사람, 2008), 13.

<sup>26</sup> Ibid, 19.

헬라이어 ‘레이투르기아’의 본래 의미를 강조한다.<sup>27</sup> 슈메만이 예배를 정의하면서 비유했던 먹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위에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예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학자들의 주장 여러 주장에 근거하여 자신의 개인의 체험이 포함된 것이다. 즉, 예배에 대해 정의할 때 내 경험보다 다른 이들의 경험이나 주장이 우선시 되거나 제한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체험된 자신의 경험이다. 감리교 교수인 박해정은 “실제 예배는 예배자의 체험적 경험에서 그 정의가 출발되어야 한다.”라고 실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의 예배 경험을 중요하게 강조한다.<sup>28</sup> 더욱이 예배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이뤄지는 예배에 대해 함께 공감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그 구성원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예배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예배의 경험에 근거하여 예배에 대해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

<sup>27</sup> Ibid, 35

<sup>28</sup> 박해정, 『빛을 따라 생명으로』(서울: 동연출판사, 2016), 22.

## 2. 예배의 형식

우리는 예배의 정의에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대로 드려야 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오늘 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신 초대교회 때부터 드러진 예배의 모습에 여러 요소를 추가하면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과 성찬이다. 이는 기독교의 초창기부터 전해져온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고백을 담은 찬송이 추가되었고, 성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었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간구하며 드리는 ‘축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송영’이 추가되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많은 예배의 요소들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들어오게 되었다.<sup>29</sup>

간혹 예배의 형식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가르치면서 ‘신령과 진정’을 강조했다으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드려져야 한다. 예배학 교수인 조기연 교수는 예배 형식의 필요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예배는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식이 필요합니다. 공예배는 ‘개인적 경건’의 행위와는 다릅니다. 개인이 홀로 기도할 때나 소수의

<sup>29</sup> 정주호, 『현 시대가 요구하는 예배의 형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장신대학교), 13.

사람이 모여서 경건회를 할 때는 형식과 내용, 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를 받지 않거나 덜 받지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예배의 순서와 구조는 물론 찬송과 기도의 내용이나 어법, 시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sup>30</sup>

예배는 개인 갖는 경건 생활과는 다르다.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는 별다른 형식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상관이 없지만,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정해진 형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초대교회 예배의 형식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오래전 교회 찬양팀에서 드럼 연주로 봉사하기 위해 잠깐 드럼을 배웠던 적이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주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혼자서 연습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결국 봉사를 내려놓게 되었다. 이처럼 모든 배움에는 체계적인 형식과 전문성이 없으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처럼 예배 또한 체계적인 형식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에 한계가 있기에 예배의 형식은 필요하다.

그럼 이 형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예배학자 로버는 웨버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먼저 ‘모든 예배는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예배의 형식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예배 형식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 찾아야 한다. 세 번째로 ‘교회에 이미 예배의 기본 신학과 풍습이 세워져 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 보여주셨던 말씀과 교제라는 기본 구조 위에 형성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특정한 상황에

<sup>30</sup> 조기연, 『묻고 답하는 예배학 Cafe』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38-39.

맞도록 예배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sup>31</sup>

필자가 속한 곳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기 때문에 본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회에서 정한 예배 예식서를 기본으로 구성된 “광주양림교회” 주일예배순서를 통해 예배 형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배부름	.....	다 함 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참회기도	.....	다 함 께
사죄확신	.....	인 도 자
찬 송	.....550장(통 248장).....	다 함 께
교회생활	.....	영 상 광 고
기 도	.....1부 ○○○안수집사	
	.....2부 ○○○ 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9:36~42(신약 203쪽).....	인도자와함께
찬양	.....1. 믿음찬양대 2. 소망찬양대	
말씀선포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목사

<sup>31</sup> 로버트 웨버, 『예배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248-249.

봉 헌	.....50: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 함 께
주 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주기도문).....	일 어 서 서
축 도	.....1·2부 ○○○목사	

<표-1 광주양림교회(통합) 23년 1월 1일자 주일예배순서>

### 1) 예배의 부름

예배의 부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로 임하게 하는 것으로, 내용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법에 따라 예배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순서가 예배의 부름이다. 성도들은 엄숙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구한다.<sup>32</sup>

### 2) 신앙고백

신앙고백은 사도들의 고백이 담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된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적으로 AD 404년에 공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쾰링가르가 드린 예배에서는 성경봉독 다음에 이 순서가

<sup>32</sup> 박노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예식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8.

있었고, 칼뱅과 부처의 예배에서는 설교 뒤에 있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설교 전에 이 순서를 두고 있지만 한국 교회 밖의 세계 개혁신교회에서는 주로 설교를 경청한 후에 드리는 고백으로 진행되고 있다.<sup>33</sup>

### 3) 참회기도

참회기도는 예배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예배자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의 참회기도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개혁신교회에 중요한 순서로 자리잡게 되었다.<sup>34</sup>

### 4)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은 참회기도 이후의 순서로 회중들이 고백한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죄사함은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선포하는 것으로 성경말씀에 의해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음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

<sup>33</sup> Ibid., 34.

<sup>34</sup> Ibid., 29.

분이심을 깨닫게 한다.<sup>35</sup>

#### 5) 경배의 찬송

여기에 담긴 의미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일어서서 응답하고, 우리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경배 올려드리는 것이다. 예배자들은 찬양을 통해 예배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찬양의 의미를 담긴 곡을 정함으로 오직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한다.

#### 6) 교회생활(교회소식)

교회생활은 사실 예배의 부분이 아닌,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전달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의 순서가 아닌 예배 전이나, 축도 바로 전에 이 순서를 넣음으로 예배의 흐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필자의 교회는 말씀선포부터 축도까지의 모든 예식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말씀봉독 이전에 교회생활을 전한다. 필자의 교회처럼 여러 교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교회생활을 전달한다.

---

<sup>35</sup> Ibid., 30.

## 7) 성경봉독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선포의 시간이다. 그러기에 개혁 당시부터 기독교 예배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말씀 선포이다. 성경봉독은 말씀 선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정한 성경 구절을 봉독하고 나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언함으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sup>36</sup>

## 8)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대를 통해 올려지는 찬양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설교 전에 부르는 찬양은 성도들을 예배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며, 예배자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성경에 처음 찬양대가 등장하는 곳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다윗 왕이 찬양대를 향해 오직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명을 주는 데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sup>37</sup> 찬양대에 속한 성도들은 오직 자신의 고백을 통해 찬양해야 한다. 악보를 보며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

<sup>36</sup> Ibid., 31.

<sup>37</sup> Ibid., 32.

## 9) 말씀선포

설교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 그래서 설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이며, 해석과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구약의 시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목회자)에서 직접 계시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설교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설교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경청해야 한다.<sup>38</sup>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은 최대한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현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이성적인 차원과 신학적 지식 차원에서 해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 10) 봉헌

흔히 봉헌이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로 여기진다. 그래서 예배자의 상황에 따라 봉헌을 스스로 결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예배 형식에 있어서 봉헌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구약을 대표적인 제사들을 설명하는 레위기 1~7장에서는 그 제사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먼저 드러지는 제물에 대해 언급한다. 이 제물은 예배자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준비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지내게 된다. 봉헌이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

<sup>38</sup> Ibid., 32-33.

섭리에 대한 예배자들의 응답이다.<sup>39</sup>

### 11) 주기도

주기도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의 모범이며,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드러져야 하는 기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 주기도를 모임이 마칠 때 의무적으로 드러지는 기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17세기경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이 기도가 너무 형식화되는 것을 보며 한때 예배에서 중단하기도 했으나 현대 모든 개혁신교회 예배에서는 예배의 중요한 순서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모임이나 회의를 마칠 때, 주기도를 통해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주기도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예배의 순서 중 주기도문은 봉헌기도에 이어서 드리는 것이 좋으며, 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0</sup>

### 12) 축도

축도의 시작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예배의 형식 중에 가장 오래되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복을 빌어주는 행위는 제사장의 고유

---

<sup>39</sup> Ibid., 35.

<sup>40</sup> Ibid., 35.

권한으로서 지금도 이 축도는 목회자를 통해서만 드러지고 있다. 이 축도는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예배의 최종을 장식한다. 축도로 사용되는 구절은 두 가지이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아론의 축도<sup>41</sup>와 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된 바울의 축도이다. 많은 개혁신교회에서는 아론의 축도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침례교와 장로교 일부에서는 바울의 축도<sup>42</sup>를 사용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필자가 속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서는 축도의 끝말을 “축원하옵나이다” 로 사용하도록 결의하였다.<sup>43</sup>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보통의 교회는 위와 비슷한 형식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는 초대교회 이후부터 내려오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드러졌던 형식에서 중요한 형식을 제외한 몇몇 부분이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형성된 예배순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은 예배의 초기 형태에서도 발견된 말씀과 찬송, 축도이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드러져야 하는 중요한 기독교 예식이다. 따라서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중요한 틀은 유지한 채 예배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sup>41</sup> 민수기 6:24-26,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sup>42</sup> 고린도후서 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sup>43</sup> 박노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예식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38-39.

### 3. 예배의 기능

우리는 앞에서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목적과 사명을 결단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예배는 단순히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의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 그의 책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for the Life of the World)』에서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기억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예배가 언제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고 말한다.<sup>44</sup>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사역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된 사역은 세 가지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이 사역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나타나야 한다.

처음 신앙을 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배를 통해 가능하다.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듣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닫혀있던 내적인 상처들이 치유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게 된다. 즉, 예배는 단순히 만나고 헤어짐으로

<sup>44</sup> 슈메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177.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자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켜 간다.

### 1) 교육적 기능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바로 약속의 땅을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 대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장소이다. 이스라엘은 약 400년의 시간을 애굽에서 생활한다. 자연스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약해졌으며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분명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믿음 없는 자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줄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된다.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sup>45</sup>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리고 일회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가르치실 때,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제사드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교육시키시는 것이다. 예배자 본인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여하게 하신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기쁨, 결단의 고백이다. 우리는 예배의 내용을 통해 교육받기도 하지만 예배드리는 자체를 통해서도 교육받는다.<sup>46</sup>

예배의 모든 부분에 교육적인 기능이 있지만 대개 말씀 선포를 통해 나타난다. 신학자인 다드(C. H. Dodd)는 설교에 윤리적인 내용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다드에 따르면 성도들에게 설교한다는 것보다는 가르친다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교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성도에게는 설교를 통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sup>47</sup> 반면 설교학자인 하퍼는 설교의 대상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성도도 포함되어야 하며, 설교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기능을 하며, 가르침은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sup>48</sup> 이처럼 설교는

<sup>45</sup> 출애굽기 12:25-27.

<sup>46</sup> 한춘기, 『예배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연구』 (총신대논총, 총신대학교), 165.

<sup>47</sup> 노르만 E. 하퍼, 『현대기독교교육』 이승구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14-115.

<sup>48</sup> Ibid, 119-120.

윤리적인 부분을 담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의 삶을 돌아봄으로 죄악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는 교육적 부분을 담고 있다.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 찬양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고백이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이 찬양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만이 아닌, 말씀에 비추어 고백되어 지는 것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sup>49</sup> 오래전 한국교회에 찬양모임이 시작되었을 때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예배의 태도였다.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에는 열광하지만, 찬양 이후 진행되는 말씀 선포 시간에는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에 많은 말들이 있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어떠한 마음을 찬양을 부르고 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찬양은 내 기분을 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해야 한다.

기도와 봉헌에도 교육적인 기능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기도와 봉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올바른 기도, 올바른 헌금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헌금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안에서 드러지는 진실된 고백과 간구, 결단을 원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특정한 집단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초대교회의 모습(행 2:42-47)<sup>50</sup>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sup>49</sup> 한춘기, 『예배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연구』(총신대논총, 총신대학교), 162-163.

<sup>50</sup> 사도행전 2:42-47,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

성도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다. 그 안에는 신분의 차이나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갔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우게 되는 것이다.

## 2) 치유적 기능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전파하고 치유하라’고 명령하신다.<sup>51</sup> 이 치유의 사역은 복음서에만 무려 16회나 등장할 정도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임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접 상처에 직접 의학적인 치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안수하거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일어난다. 누가복음 4장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변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그들에게 안수하심으로 병을 고쳐주신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치유하신 장면이 등장한다. 당시 병든 자에게 직접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즉, 안수는 제사나 기도, 축복을 구할 때 말고는 사용하지 않았었다.<sup>52</sup>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

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sup>51</sup> 마태복음 10:6-8,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sup>52</sup> 김득중, 『성서주석 누가복음(I)』(서울:대한기독교서회,2003), 277.

손을 대시고 고치시는 것은 치유의 목적이 단순히 병고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까지도 고치시려는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네명의 친구가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아 들어가기 어렵게 되자 그들은 지붕에 올라 지붕을 뜯고 밧줄에 메달에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다. 예수님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신다. 그리고 자신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sup>53</sup> 라고 말씀하시며 그 병을 고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그 중풍병자를 데린 네 명의 친구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병든 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당시 유대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꾸짖으며 그 시선을 마다하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고쳐주신다.<sup>54</sup>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배 안에서 나타난 치유의 장면은 서신서에 등장한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기도와 기름부음, 죄의 고백을 통한 치유사역이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된다.<sup>55</sup> 병든 사람이라고 번역된 ‘아스테네오’는 ‘병약하다’라는 뜻으로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누워있는 환자들을 가리킨다.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 이들을 향한 치유 사역이 이뤄져야 함을 선포한다. 이는 치유 사역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sup>53</sup> 마가복음 2: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sup>54</sup> 류지성, “예전 안에서의 치유적 요소 연구 : 초대교회 예배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7.

<sup>55</sup> 박해정, “성만찬과 성유식이 함께 있는 치유예배” ,(서울: 한국실천신학회, 2007), 205.

것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치유의 사역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 사역처럼 육체적인 질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15절에 기록된 ‘사하심을 받으리라’ (약 5:15)를 원어로 살펴보면

‘아페데세타이’로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 장로들을 통한 치유는 육체의 질병을 포함하여, 질병의 원인인 죄에 대한 용서까지도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sup>56</sup>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잡다한 생각들을 버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거짓 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죄악은 물론, 우리 안에 연약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신학자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J. Clinebell)은 “효과적인 예배 행위는 어디에서나 좋은 집단치료가 된다”<sup>57</sup>라고 주장했다. 예배의 주된 목적이 치료의 목적은 아니지만, 예배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픔과 고통, 죄악들이 해결되어지는

<sup>56</sup>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 야고보서, 요한서신, 유다서』 (서울: 제자원, 2006), 312.

<sup>57</sup> Clinebell, Howard J. The Mental Health Ministry of Local Church. Nashville: Abingdon, 1972. 에서 전요섭 “기독교상담에서 본 예배의 치료적 역할,” 「복음과 상담」 321에서 재인용.

부가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신학자인 존 터너(John Turner)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자들이 모인다는 것은 치유가 일어나게 마련이다”<sup>58</sup>라고  
 주장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 육체적인 치유는 물론, 정신적이고 영적인 회복까지  
 경험하게 된다. 즉 예배를 통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 3) 선교적 기능

만남과 대화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반응이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반응과 예배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필자는 그 반응이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손운탁은  
 선교를 정의하길 “생명을 다해 감당하여야 할 심부름”<sup>59</sup>이라고 한다. 즉 선교는 말  
 그대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널리 베풀고  
 선포하는 것이다.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sup>58</sup> John Turner, Healing Church, 『치유와 기독교』 김선도 역 (서울: 대한기독교, 1986)에서  
 “기독교상담에서 본 예배의 치료적 역할,” 「복음과 상담」 322에서 재인용.

<sup>59</sup> 손운탁, “선교교육의 기초 이론과 실제,” 「선교와 신학」 27, 446.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이 모습을 옮겨 본 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다.<sup>60</sup>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2-47)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고 들은 데로 성도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 당시 있었던 세상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신분의 차별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자 따로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모여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간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를 삼는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sup>61</sup>이다. 이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 이는 기독교 초기 로마의 박해로 인해 각지로 흩어졌을 때 더 빛을 발하게 된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sup>62</sup>라고 칭한다.

<sup>60</sup> 사도행전 2:42-47

<sup>61</sup>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sup>62</sup> 나무위키 출처 ‘고전 그리스어로 과중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혹은 이주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들은 강제이주 정책으로 인해 타국으로 흩어졌으나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기독교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예배는 예배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깨닫고 결단하게 한다. 즉, 만남을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제 III 장

#### 온라인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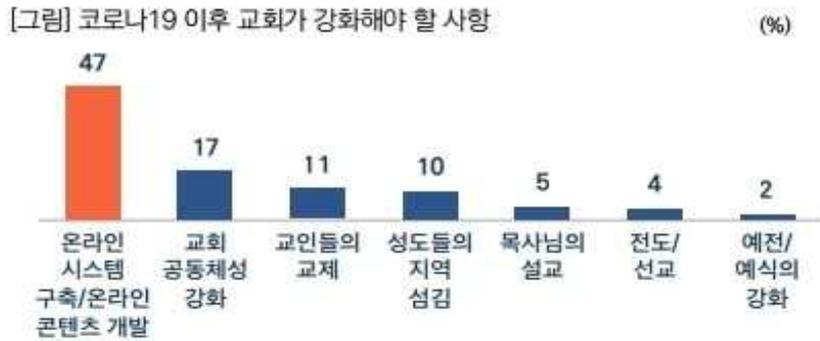
코로나 19 이전에도 온라인 예배는 진행됐다. 그러다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정부 방역시책에 따라 온라인 예배가 의무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전까지 온라인 예배는 사정이 있어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진행되어왔다. 그것도 대부분의 교회가 아니라 규모가 있고 시설이 갖춰진 몇 대형 교회들에서 주로 이뤄져 왔다. 필자도 20대 때 무릎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서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때, 본 교회 예배가 아닌 영상을 통해 대형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실황을 통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예배드릴 수 없어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참 좋은 수단이었다. 특히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키지 못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욱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물론 한편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줬다는 불편한 시선들도 있었지만 이는 개인의 신앙문제인 것이다. 먼저, 온라인 예배에 대해 살펴보면 카메라나 음향, 조명 등의 방송용 장비들을 이용하여 영상 중계하고 있는 예배 화면이나 사전 제작한 예배 영상들을 교회, 혹은 외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배를 송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면서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는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였다. 한편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 정부의 방역시책에 교회가 발맞춰야 한다고 외치는 반면, 한편에서는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멈출 수 있냐는 외침도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예배당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면서 ‘예배 에티켓’이라는 캠페인을 만들 정도로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옷가짐부터 예배에 임하는 자세까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진행하려 하였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 온라인 예배가 과연 타당한 예배인지, 온라인 예배를 통한 장점과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1. 코로나 시대 변화된 예배 인식

2020년 2월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교회는 물론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방역수칙에 따른 수많은 제한이 생겨났고 삶의 모습 또한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변화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예배는 축소되었고 모임은 제한되었다. 이에 교회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모이는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만나는 비대면 예배와 모임이었다. 많은 교회가 현장을 고집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감염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눈총을 받게 되었고, 성도들 또한 직장에서 교회 예배에 참여할 때 생기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기에 점점 온라인 예배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져 갔다.<sup>63</sup>

<sup>63</sup>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넘버즈」 69 (2020)



<그림 1> 코로나 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걱정도 많았지만 당장 온라인 예배 외에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져만 갔다. 이러한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만 갔고, 코로나 19가 유행했던 20년 4월보다 감염자가 점점 증가했던 같은 해 7월 더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중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절반 이상의 중직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예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음을 보게 된다.<sup>64</sup>



<그림 2>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

<sup>64</sup> Ibid.

사실 코로나 19 이전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sup>65</sup> 필자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아도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겨졌으며, 주일 날, 예배 외에 다른 여가 행위를 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불과 3개월 만에 코로나로 인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인식이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려도 된다고 변화되었다. 필자가 속한 교회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이다. 광주에 처음 세워진 교회로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체제로 돌아서자 많은 반대들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점점 심해지자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19년 기준으로 성도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인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들은 인터넷이 불가능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 가정에서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용량이 크지 않아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교회에서 연구한 방법이 올레티비(kt)에서 제공하는 채널 888 ‘우리교회’였다. 예배를 사전 녹화하여 채널에 등록, 언제든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 방법 또한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신 분들에게만 열려 있었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도 연세가 많은 성도가 참여할 수 있었다.

사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 19로 인해 부정에서 긍정으로

<sup>65</sup> 박해정,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예배에 관한 고찰,” 「신학과 세계」 98 (2020), 187-188.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예배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예전에는 예배당에 나와야만 주일 성수를 지켰다는 인식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일 성수를 지켰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제 온라인 예배는 기독교 예배에 큰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사용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시대에서 대면만을 외칠 수 없게 되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가 무려 93%에 이른다.<sup>66</sup>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공유한다. 인간관계 또한 인터넷을 통해 맺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더 이상 모이는 예배만을 외칠 수 없게 되었다. 온라인이 생활화가 된 지금 모이는 예배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온라인을 통한 올바른 예배 문화의 형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용	이용안함
만3세 이상 전체	93.0	7.0

BASE : 만3세 이상 전체  
PERIOD : 최근 1개월 이내

(단위 : %)

<그림 3>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여부

<sup>66</sup>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24.

## 2. 온라인 예배의 유용성

코로나 19로 대면모임이 제한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방법을 찾게 되었고,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구축할 재정적, 기술적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반면에 어떻게든 기술을 갖춰 온라인 예배를 시도하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생겨났다. 처음에는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던 성도들이 각 교회에서 드러지는 온라인 예배를 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 1) 시간과 공간을 초월

온라인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19처럼 강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못할 때,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등,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요즘은 군대에서 핸드폰 소지가 가능하게 되어서 신앙을 더욱 간절히 원하는 청년들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개인의 신앙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교회라는 공간에서 맺을 수 있는 공동체성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직접 만남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없다 보니 한 공동체라는 친밀감을 갖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독일 신학자 테레사 베르거(Teresa Berger)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온라인 공동체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첫째로, 교회라는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공동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둘째로, 몸은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 셋째로, 그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배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넷째로, 예배에 참여한 누군가는 공동체가 주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 채 반감이나 소외감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sup>67</sup> 공동체성은 물리적인 한 공간에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비록 다른 공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배를 향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안에 진정한 공동체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 2) 하나님의 임재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면서 계속된 질문은, '과연 온라인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가?' 였다. 베르거는 예배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남"<sup>68</sup>이라고 말하며, 성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로 보이고, 혼돈 속을 떠돌아다니며, 그리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 나타난다."<sup>69</sup>고 말한다. 이는 마태복음 18장 20절<sup>70</sup>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어디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온라인 예배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을 가능케 한다.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출발한다. 이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sup>67</sup> Tessa Berger,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 안선희 역,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115.

<sup>68</sup> Ibid, 287.

<sup>69</sup> Ibid, 288.

<sup>70</sup> 마태복음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상 세계가 연결된 예배의 자리에도 계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체하는 성도의 신앙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유사성을 제공한다.<sup>71</sup>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로 국한해왔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선포하면서도 예배는 예배당에 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온라인 예배는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성도들이 갖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3) 선교의 새로운 공간

온라인 예배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가나안’ 성도들과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선교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정재영 교수는 가나안 성도를 정의하길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다녔듯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sup>72</sup>이라고 한다. 20년 10월 방송된 SBS뉴스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의 20%,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현재 가나안 교인으로 있으며, 그 원인을 교회의 돈 문제, 세습문제, 코로나 방역 문제 등, 교회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을 원인으로 뽑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sup>73</sup> 가나안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신앙인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성을 갖춘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의 시작은 멈췄던

<sup>71</sup> 김기태·박진석 외, 『디지털시대의 교회와 커뮤니케이션』(서울: 한들출판사, 2017), 102.

<sup>72</sup> 정재영, “종교 세속화의 한 측면으로서 소속 없는 신앙인들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9 (2014): 578.

<sup>73</sup> SBS 8시 뉴스, “ [ 끝까지 판다② ] 거리에 깔린 십자가...새길 찾는 목사들,” (2020.10.15)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예배는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되었다. 20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영상 매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들(CTS, 극동방송, CBS 등)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선교사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더욱이 전세계 스마트폰 보급율이 18개 선진국 기준, 약 76%<sup>74</sup>에 이르는 지금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사역은 믿지 않는 이들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해소하며, 복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3. 온라인 예배의 부정적인 측면

앞에서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오는 유용성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이후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은 ‘성도들의 신앙 약화’이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출석 성도와 헌금, 각종 모임의 감소 및 제한 등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를 미뤄놓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후,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속한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방역지침이 많이 약해진 22년 초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음에도 젊은 세대의 출석률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현재 대면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대면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 예배도

<sup>74</sup> KBS 뉴스,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 · · · 보급률 1위 국가는?,” (2019.02.11),

예배이니 번거롭게 교회에 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예배가 좋다.’ 는 이야기들이 자주 들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문제가 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시간

먼저는 ‘시간’이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면서 예배 시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전에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시간 맞춰오고, 늦으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면서부터는 시간적인 제약이 사라졌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예식과 절기, 개인의 영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신학자 김정은 “시간 속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대하면서, 초대교회는 시간을 구조화하고, 삶을 예배로 예배를 삶으로 이끌었다.”<sup>75</sup>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시간을 정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함께하길 원하시고 찾아오신다. 따라서 예배에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공동체가 정한 시간이기엔 그 시간을 지키려 했던 노력이 있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예배 실황을 놓치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통해 예배를 시청할 수 있다. ‘무한도전’이라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다. 오래 지속된 방송이었는데 점점 시청률이 떨어지자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멤버들이 시청자들을 만나 문제점을 물어보는 방송이 있었다. ‘시청률이 왜 떨어졌을까?’ 라는 질문에 시청자들의 대답은 다시보기 기능이 생기고, 여러 채널에서 재방송을 자주 하다

<sup>75</sup> 김정은, 『초대 교회 예배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77.

보니 굳이 본방송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예배에도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준비했던 열심과 정성이 사라진 것이다.

## 2) 공간

예배 공간(장소)에 관한 논쟁은 신약성경에서도 나온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온다.(요4:20-24) 여인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묻는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요4:24)<sup>76</sup>. 예수님께서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 장소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어린 시절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되게 하는 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공간을 한 장소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계시며,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에 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옳은 예배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어디서는 공간의 제약 없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다. 그 지적들을 보면 대부분 마음(정성)에 관련된 것이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 여행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옳으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아무래도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많은 부분이 축소되고 제한된다.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sup>76</sup> 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것도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공간이다보니 예배드리는 자세도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예배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길버트 오스딕은 이것을 ‘거룩한 환경’ (holy climate)이라 부르며 아래와 같이 말한다.

예배 공간은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 준다. 그 여정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말해 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말해 준다. 이 때 예배 공간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단어(audible words)보다는 좀 더 섬세한 음성(subtlevoices)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 공간을 만들어 가고, 예배 공간은 다시 우리 모두를 형성해 간다.<sup>77</sup>

예배에서 공간이 갖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예배자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음향이나 조명, 크기 등 공간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러하기에 늘 예배의 장소를 늘 청결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신경 썼다.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경우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성도들이 갖게 해야 한다.

### 3) 설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설교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sup>77</sup> Fred B. Craddock, *Overhearing the Gospel 13*, Jane Vann, 『예배를 디자인하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5), 90에서 재인용.

가르침이다. 그래서 설교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것인지를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한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와 활발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기에 좋은 설교, 신앙적으로 부담이 없는 설교를 찾아 듣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골라 듣기 시작한 것이다.

초대교회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복음이었다. 때로는 그 말씀에 나에게 날카롭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많아져 갔다. 그것이 복음이기에 그들을 향한 박해와 고난에도 순종하며 지켜나간 것이다.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수많은 설교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설교에 대한 인식이 한편의 좋은 교훈처럼 바뀐 것이다. 또한 온라인 예배로 쉽게 설교를 접할 수 있게 되다보니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또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보여줄까?’ 를 고민하여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기도 한다. 마치 쇼핑을 하듯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습관이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예배를 ‘상품화’ 시켜가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sup>78</sup>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시기에 신앙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의

<sup>78</sup> Nathan D. Mitchell, *Meeting Mystery: Liturgy, Worship, Sacraments*, 『예배, 신비를 만나다』 안선희 역 (서울: 바이북스, 2014), 363.

설교를 통해 도움을 받았고, 응답자의 15%가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아닌 타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sup>79</sup> 본인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타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도움받았다는 것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만큼 타교회의 목회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라인 예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있어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에 대해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믿음은 약해져갈 것이고, 영적 자생력도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4. 온라인 예배에 나타난 문제 해결 방안

##### 1) 온라인 환경에 따른 콘텐츠 개발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성도들의 영적 기대를 채울 수 없다. 세상을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발맞춰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성도들의 영적 기대를 채워야 한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활용도가 높은 교육부서는 더 시급하다. 22년 3월 보도된 연합뉴스를 보면 ‘10대 청소년 3명 중에 2명이 코로나 19로 미디어 사용이 증가’ 했으며,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보면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5시간 이상이

<sup>79</sup>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넘버즈」 69(2020)

각각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미디어로 대부분의 정보를 얻고 시간을 보낸다. 온라인이 익숙하고 편한 아이들에게 잘 준비되고 기획된 예배는 대면 예배 못지 않은 은혜를 가져다 준다. 코로나 19가 있기 전부터 아이들은 유튜브에 올라온 찬양(위러브, 제이어스, 아이자야 식스티원 등)을 들으며 찬양을 배워왔으며, 영상을 통해 보여지는 예배의 환경에 환호하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가 전문적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단체와 똑같은 환경은 만들지 못할지라도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장년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또한 필요하다. 사실 장년부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선호한다. 미디어 사용 여부 또한 젊은 층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하지만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젊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주로 습득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콘텐츠의 개발목적은 ‘유행’이 아니다.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대로 공동체서의 확립과 지속이다. 따라서 목적과 연령층에 알맞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장년들은 정적인 콘텐츠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줌을 통한 성경공부나 기도회 모임, 성경 필사 등, 크게 준비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반면 젊은 층은 동적인 활동과 모임에 반응한다. 최근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이라는 교육방식이 교육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게임이 가진 구성 요소들인 보상과 성취, 자기표현, 경쟁 등을 반영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끌어내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sup>80</sup>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교육 방식이다. 온라인

<sup>80</sup> 함영주,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기반 블록형 코딩을 활용한 기독교교육 콘텐츠 개발모형연구,” 「신학과 실천 74」 (2021), 705.

사역을 진행하는 몇 교회의 사례를 살펴보자.

영유아, 유치부 같은 아이들은 보통 가정을 통한 예배와 활동 등이 주를 이룬다. 예배와 활동에 필요한 키트를 각 가정에 보내고, 예배를 드릴 때 지침도 제공한다.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집중도를 끌어낼 수 있다. 아이들은 그 활동이 끝날 때까지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한다. 다만, 유의할 점은 부모님과 소통이 없이 아이들하고만 진행된다면 형식적인 것으로만 그치게 된다. 예배를 드리기에 이전에 부모님과 충분히 소통하여 아이들이 흐트러짐 없이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온라인 환경이 익숙한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 나이 또래 아이들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소통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보다는 직접 소통함을 통해 비록 한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마치 함께 모여서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댓글창을 이용하여 현재 예배자가 느끼는 감정을 함께 소통해야 한다. 목회자나 교사들은 그 댓글창에 올리는 아이들의 감정에 공감해주시고 함께 참여한 아이들에게 소개해주는 등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온라인 예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성교회를 보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실시간 성경 퀴즈나 댓글참여를 통한 이벤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화상회의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 수련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sup>81</sup>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 개발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비용과

<sup>81</sup> 유지혜, 『우리 교회 온택트 주일학교』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1), 76-77.

인적 자원이다. 모든 교회가 위에서 소개한 교회처럼 높은 수준으로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기획하고 제작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이다. 너무 온라인에만 치우쳐서는 안되고, 온라인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오프라인을 통한 참여가 어렵다면 교사가 직접 찾아가 함께 참여하는 방법, 여건이 허락된다면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참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소통에 관한 문제이다. 소통이 없는 온라인 예배와 사역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댓글 참여를 할 수 없기에 이후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 설교에 대한 은혜 나눔과 삶의 결단을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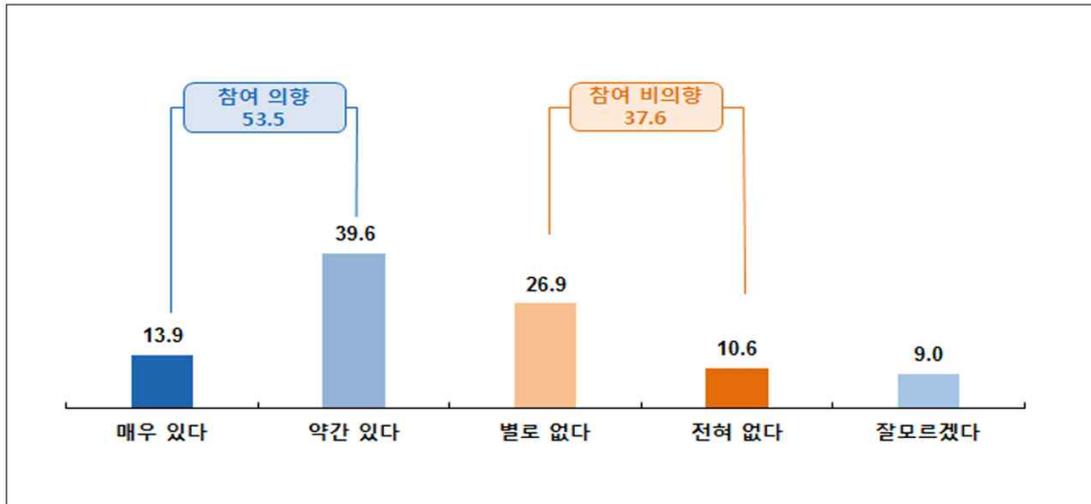
네 번째로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대상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면서 본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성도’ 들이다. 따라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가나안 성도를 대상으로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가끔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다면 참여하실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무려 절반 이상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sup>82</sup>

<sup>82</sup>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 「넘버즈」 42 2020. 4. 9, 49.

[그림]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가나안성도)

(N=245, %)



&lt;그림 4&gt;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가나안 성도)

## 2) 소그룹의 활성화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발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하는 교회’ 4가지 DNA” 를 보면 첫 번째가 온라인 사역, 두 번째가 소그룹, 세 번째가 평신도 Advisor, 네 번째가 뚜렷한 목회 비전이다. 앞으로 소그룹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코로나 19를 지내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뤄졌던 만남과 나눔이 멈추자 그 안에서 이뤄진 영적이 회복과 성장 또한 멈추게 되었다.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공동체성 결여로 인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그룹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모임보다 소규모로 모이는 소그룹을 선호하고 있다. 소그룹은 같은 목적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공간이다. 성도들은

이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 받고 성장해 나간다.<sup>83</sup> 이는 많은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나타난다.

프랑스어로 ‘살롱(salon)은 ’ 응접실 ‘, ’ 사교 모임 ‘을 뜻한다.

17~18세기 상류층 귀족들이 모여 문화예술계 인사를 집으로 초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어울리던 공간과 모임이 살롱이었다. 당시 시대는 엄연한 신분제도가 있었으나 이곳에는 남녀노소, 신분, 직위와 상관 없이 평등하게 대화하고 토론했다.<sup>84</sup> 우리는 이 문화 안에서 소그룹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소그룹은 누구나 함께 모여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소그룹은 오프라인 뿐만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국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주로 구역 모임과 셀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임이 진행되는 형식은 다르지만, 이 두 모임이 갖는 공통점은 소그룹이다. 필자는 소그룹이 갖는 가장 큰 힘을 ‘나눔’ 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수가 모이는 곳에서는 선뜻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쉽지 않다. 우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빨리 모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5명 정도로 모이는 소그룹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진솔한 이야기와 나눔, 공감이 가능하다. 그 안에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가장 크게 받는 시간이 소그룹 모임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교회가 요즘 젊은 세대는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들을 보면 30~50대 세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 대면 모임이 제한된 코로나 시기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줌을 통해 소그룹 모임을

<sup>83</sup> 앤디 스탠리,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이중순 역 (서울: 디모데, 2007), 94.

<sup>84</sup> 목회데이터연구소,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넘버즈」 49 (2020. 5. 29)

가져왔다. 대표적인 셀 교회인 지구촌교회는 줌을 활용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출석률이 높아졌다고 한다.<sup>85</sup> 특히, 줌을 통한 소그룹 모임은 기존 소그룹 모임에 했던 성경 공부, 심방, 기도회, 말씀 읽기, 친교 등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부와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열의이다. 지금도 고령층 대부분은 인터넷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인터넷이 가능한 PC나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는데 단지 소그룹을 하겠다고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젊은층은 각자의 생활이 바쁘다 보니 평일에 시간을 내서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모이는 방법과 시간을 적절히 조정해서 모이려는 노력과 수고, 구성원들 간의 배려가 있다면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필요하다.

온라인 예배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그 문제점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조절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세대들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다. 우리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회는 온라인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문화를 바꿔가야 한다.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예배의 목적과 신앙교육에 맞게 기획하고 제작해야 한다. 많은 제정과 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 새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같은 수고와 노력,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안에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참여하는

<sup>85</sup> 지구촌교회, “2021 글로벌 셀컨퍼런스: (1) 코로나 시대, 왜 셀교회인가?” (2021.5.26).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사역이다.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회복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말씀읽기와 기도, 성도간의 교제와 나눔, QT, 성경 공부는 개인의 신앙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교회는 온라인 환경에만 몰두해서 성도들의 신앙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은 개인의 신앙을 위한 늘 노력해야 한다.

## 제 IV 장

###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 사례

#### (광주양림교회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이 본격화된 2020년과 2021년 사이 광주양림교회(통합측)에서 진행했던 예배를 포함 온라인 사역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필자가 속한 광주양림교회는 코로나 19가 유행되기 이전부터 영상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 왔다. 준비하는 과정에 코로나 19로 발생했고, 20년 3월 방역수칙에 따라 교회의 모든 사역이 비대면으로 돌아갔을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역들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 1. 예배 사례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주로 유튜브나 비메오 등을 통해 예배 실황을 진행해왔다. 필자가 속한 교회 역시 비메오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여 영상 예배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수칙에 따라 일부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실황으로 송출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속한 교회는 실시간 송출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자 예배의 모든 순서를 사전 녹화하여 하나의 예배 영상을 제작하여 성도들에게 송출하였다. 그리고 성도들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찬양대와 찬양팀, 기도와 설교 또한 예배당에서 녹화하여

편집 과정을 거친 후 제공하였다.

광주양림교회 20200223 주일예배 1-2부 큐시트 (ver.2.0)

시 간	소요 시간	예 배 순 서	내 용	참 고	담 당 자
<b>● 예배준비</b>					
6:52	8:52	8	예배 전 묵상 예배 5분전에 예배를 알리는 영상 송출 예배인도자/설교자/기도자/ 10분 전 입실 완료	5분전 음성없는 영상송출	오르가니스트 (2부 오르가니스트)
<b>● 예배를 위해 나아가</b>					
6:59	8:59	1	예배인도자 입장 (1부-담당목사, 2부-담당목사 기도자- 1부- 담당자, 2부-담당자 장로 )	*사회자 등단 때 딛머 조명 ON (방)	예배위원 오르가니스트
7:00	9:00	1	예배로 부름 예배인도자가 강단에 등단하여 예배로의 부름 시작 ▶ <b>할렐루야! 3월의 첫 번째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b>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50:12) 아멘		1부/2부/담당목사
7:01	9:01	2	송영 "예배로 부름" 마치면 곧바로 경배의 찬양 시작 "1부: 626장" "2부: 일레송(성가)	반주자	당분간 반주로 대체됩니다.
7:03	9:03	2	찬회의 기도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행하지 못하였고, 주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안목의 정육을 따라 애굽의 길,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선택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사 하루하루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영성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1부/2부/ 담당목사
7:05	9:05	1	사죄의 확인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15초가량 침묵) 은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b>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미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시 34:18, 20)</b>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단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7:06	7:06	3	기쁨(영광)의 찬양 찬송가 84장 "은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함께
<b>● 성도의 교제</b>					
7:09	9:09	1	성도의 인사 하나님의 은혜로 베타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분 한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함께
7:10	9:10	4	새가족 소개 및 교회 소식 영상 광고 멘트가 나오면 광고 송출됩니다.	영상광고	동영상
<b>● 말씀선포와 응답</b>					
7:14	9:14	3	대표기도 기도자는 광고 송출 시 등단하여 미리 준비하고 광고 끝나면 바로 기도 진행합니다. (기도자 등단 시 오르간과 피아노 연주 없습니다.)		1부/ 담당자 2부/ 담당자
7:17	9:17	1	기도송 기도송도 당분간 반주로 대체됩니다.		반주자
7:18	9:18	1	성경봉독 " 본문 " ( 구약 000쪽)		예배인도자
7:19	9:19	4	특별 찬양 성경 봉독이 끝나고 설교자가 특송 소개 후 찬양 1부 없음 2부: 담당자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콘덴서 마이크 설치)	콘덴서 마이크 마이크 스탠드	1부/ 없음 2부/ 담당자
7:23	9:23	25	말씀선포 찬양 마지막 부분에 설교자가 등단 "설교제목" * 이번주는 말씀 후 찬양은 없습니다.		담임목사
7:48	9:48	2	말씀선포 후 기도 설교 후 기도.	헌금위원 준비	담임목사
<b>● 봉헌 그리고 파송과 축복</b>					
7:50	9:50	1	봉 헌 ☞ (청중 일으킴) 50장 1절 전체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전주는 1절 4마디 부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어서서	담당목사
7:51	9:51	1	봉 헌 기도 ☞(계속 일어서서) 기도 시작	일어서서	담당목사
7:52	9:52	2	주 기도 ☞(계속 일어서서)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일어서서	담당목사
7:54	9:54	1	축 도 ☞(계속 일어서서) (1, 2부는 1절 옆으로 퇴장 )		담임목사
7:55	9:55	1	후 주 *당분간 반주로 대체됩니다.		반주자

<공지> \*강대상 예전 색(스톡) : 녹색,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찬양대 운영은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송영/기도송/후주는 반주자로 대체됩니다.  
헌금위원 입장 시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헌금위원은 말씀 후 찬양할 때 준비하시고 찬송가 50장 부르실 때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봉헌 찬양이 전주는 처음 4마디 진행하시면 됩니다.

<표 2> 2020년 2월 23일 주일예배(온라인예배) 큐시트

코로나 19로 인해 찬양대 운영이 중단되면서, 방역수칙에 따라 특송자를 세워 찬양대의 순서를 대신하였고, 그 외의 순서는 기존 대면예배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 되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졌고, 교회에 대한 성도님들의 걱정과 근심을 해소시켜 드리하고자 목회자들이 ‘예배가는 길’을 제작하여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는 경로를 직접 촬영하여서 예배 시작 전에 마치 직접 교회를 오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걱정하는 성도님들의 문의가 많아질 땐 목회자들이 예배 전에 영상으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여건상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설교문을 포함한 예배순서지를 만들어 우편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배송하기도 하였다.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되 간소화하여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기도회에 참여함으로써 교회와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목회서신]

목회자들 추석인사

날짜 2021-09-18 조회수 146



<그림 5> 2021년 추석명절 목회자 인사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집중도와 자세였다. 처음에는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그 마음이 약해져만 간다는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심방을 하며 듣게 되었고, 이에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예배 캠페인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주일예배**  
2020.3.22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두번째)

설교자: [redacted]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예배영상 준비안내**

1. 의복을 단정히 갖추고, 조용한 예배 장소를 마련합니다.
2. 성경책/찬송가를 준비합니다.
3.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4. 바른 예배 자세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5.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redacted]

\* 영상은 태블릿PC, 스마트TV 등 큰 화면을 권장합니다.

<그림 6> 2020년 3월 22일 주일예배(영상예배) 준비안내 화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교육부서였다. 과연 교육부서 아이들, 특히 미취학 아동이나, 유·소년부 아이들이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에 기존에 드렸던 예배 형식에서 벗어나 최대한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과 교사가 직접 영상제작에 참여하여서 진행하였다. 공과공부는 매월 필요한 교재를 하나로 묶어서 각 가정으로 배송하여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 공과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 2021년 1월 31일 유치부예배(영상예배) 공과공부 화면

또한 청년부 예배는 청년들의 정서에 맞춰 교회 카페에서 예배를 제작하여 청년들에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배 후 진행되는 소그룹 활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하여 그 안에서 교제와 삶의 나눔, 결단과 기도를 진행하였다.



<그림 8> 2021년 9월 27일 청년부예배(영상예배) 소그룹 안내 화면

고난주간에는 일주일동안 실시간 영상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세족식'을 통해 재현함으로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발을 씻기는 등의 활동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성찬식 또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그림>에 나와있는 것처럼 성찬에 필요한 빵과 포도주스를 키트로 제작하여 성도들이 직접 교회로 찾아와 수령하였고,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직접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 때 담임목사의 진행에 따라 각 가정의 신앙의 가장들이 직접 빵과 주스를 나눔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성찬식을 진행하였다. 아무래도 가정에서 진행되는 성찬식이다 보니 성도들에게 성찬의 의미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여 경건함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였다.



고난주간 라이브 4번째 예배 (세족식)

▶ 680 ♡ 0

<그림 9> 고난주간 라이브방송(세족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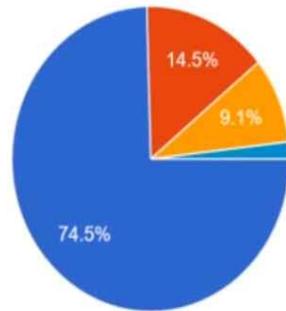
<그림 10> 비대면 성찬식 성찬 키트

## 2. 목양 사례

코로나 19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대면 만남이 어려워졌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심방도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화심방을 통해 성도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으나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에 계획한 프로그램이 '힐링캠프'와 '찾아가는 심방'이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성도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 시기에 겪는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도 하였으며, 목회자가 직접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만남,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 광주양림교회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 6. 방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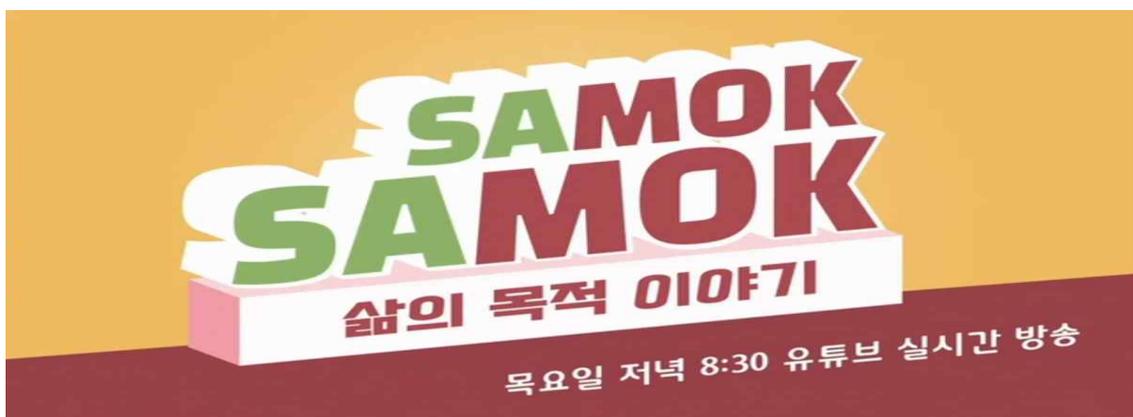
-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 잘하고 있습니다.
- 좋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 아쉬움이 많습니다.
- 너무 잘 대처하고 있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림 11> '힐링캠프' 방송 화면 중에서(코로나 시기 성도들의 고민 나눔)



<그림 12> 찾아가는 심방 화면 중에서(성도 사업체 방문)

또한 코로나 기간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목회자들이 꾸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지속해왔다. 여러가지 제목과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하였고, 이 시간에는 직접 성도들과 댓글창을 통해 소통하며 찬양곡을 신청받고, 방송 컨셉과 맞는 사연들과 기도제목을 받아서 함께 방송을 만들어 왔다. 연초에는 성도들의 기도제목을 미리 받아 온라인을 통해 매주 교구별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회에 관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형식의 방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에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광주지역의 담임목사님과 연합하여 '사목사목'(네 명의 목사들의 네가지 목회이야기)를 기획하여 다른 교회들과의 연합사역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목요방송을 계속해서 진행해 온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 기간 성도들이 교회와 멀어졌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성도들이 코로나 19를 통해 겪게되는 어려움과 신앙의 고민들을 함께 나눔으로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전과 다름 없이 열심을 내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림 13> 목요특별방송 '사목사목' 썸네일

'목회서신'을 통해 담임목사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하였다. 코로나 19로 모든 사역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면서 예배에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수많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성도들과 만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칫 지루하거나 무거워 질 수 있는 분위기를 깨기 위해 예능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자신의 사연이나 기도제목을 올려 함께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교육부서에서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TV프로그램의 컨셉을 빌려 '붕붕TV'와 '양림메이트'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목회자들이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거나 교회로 초대하여 아이들의 근황에 대해 나누고, 간단한 성경퀴즈를 통해 선물을 전달하는 등 부모님과도 함께 연계하여 아이들의 신앙을 돌보는 시간들을 마련하였다.



붕붕티비 김아린편

▶ 16 ♡ 0

<그림 14> 유치부 심방프로그램 '붕붕TV'



### 제5화 영상편집 디자이너-김은우편

▶ 48 ♡ 0

<그림 15> 유년부 심방프로그램 '양림메이트'

온라인 활용에 익숙한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일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작하여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였고, 짧은 인터뷰 형식의 '숏튜브'를 제작하여 코로나 시기 함께 만나지 못해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야하는 청년들에게 공유하여 영상을 통해 소통하였다. 코로나 기간 수련회 또한 온라인을 통해 청년들이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필자가 속한 교회가 광주에 처음 선교사들이 정착하여 선교활동을 했던 양림동이기 때문에 선교유적지를 촬영하여 청년들에게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등의 시간도 마련하였다. 우선 젊은 세대는 영상이 너무 길거나 지루하며 절대 보지 않는다. 짧고 간결한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제작된 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림16> 청년부 심방프로그램 '양림여호수아 쑏터뷰'

### 3. 교육 사례

코로나 19 를 지나오면서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먼저 화상회의프로그램인 '쑏'을 활용한 성경통독 프로그램인 '양림성경 BT'이다.



<그림 17> 성경 BT 썸네일

성도들과 가장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보니 가장 익숙하면서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성경통독이 가장 적합했다고 판단되었다. 성경 통독을 단기간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두 달, 길게는 세 달의 단계별 스케줄을 만들어 2년간의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해진 기간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제작된 담임목사의 성경 강의를 통해 해당 성경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강의를 바탕으로 성경 읽기를 진행한다.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자신이 나눈 묵상 내용을 조별 카톡방에 올려 서로의 묵상을 나눈다. 그리고 매주 정해진 날짜에 줌을 통한 조별 모임을 통해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 주일 날 담임목사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읽은 말씀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등의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말씀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을 담당 목회자에게 질문하면 담임목사의 답변 영상을 제작하여 성경통독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전달하였다. 첫번째 단계가 끝났을 때 참여하고 싶으나 '줌(zoom)'을 어려워하거나 꺼려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카카오톡'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라이브톡'을 통해 매주 목회자들이 돌아가며 목회자의 묵상 내용을 공유하고 기도제목을 채팅창에 올려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였다. '라이브톡'에는 주로 연세가 많으신 성도들이 참여하여 성경통독을 함께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항존직 피택선거가 있었다. 피택된 항존직들 위한 교육 또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처음에는 대면과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4개월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교회에서 지정한 책을 매주 읽어가면서 책 내용을 요약하거나 소감을 작성하여 매주 과제로 제출하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줌(zoom)'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였다.

담임목사와 부목회자들이 강의를 제작하여 사전에 제공하고 이 강의 내용을 또한 조별 모임 시간에 나누게 하였다.

교육부서에서는 'BTS(Bible Training School)'을 제작하여 '줌(zoom)'을 통한 성경공부를 진행하였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목회자들이 교사들과 함께 영상으로 제작하여 매주 정한 시간에 '줌(zoom)'을 통해 아이들을 만났다. 먼저 'BTS'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각 가정에 택배로 배송하여 아이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BTS 신청서

## 슈퍼북과 함께하는 BTS

3D 성경 애니메이션 교육 프로그램

**10월 17일~12월 12일**  
**매주 토요일 / 9주 과정**  
**오전 10시~ 11시 30분**



• 9주 과정 프로그램

10월 17일	태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10월 24일	태초에: 유혹을 이기라
10월 31일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
11월 7일	시행: 하나님과의 관계
11월 14일	시행: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하라
11월 21일	시행: 공급하시는 하나님
11월 28일	아담과 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다
12월 5일	아담과 에서: 축복을 귀하게 여기다
12월 12일	아담과 에서: 다른 사람을 동사하라

**\*10월 16일까지**  
 유치부/유년부/소년부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신청바랍니다.

• 실시간 ZOOM 온라인 교육 BTS에 참여하는 방법

- 강의 시간에 Zoom에 접속합니다.
- 준비된 강의 영상을 Zoom을 통해 시청합니다.
- 강의 영상을 시청 한 후, 그룹토의를 합니다.
- 양림교회 아카데미 카페(<http://cafe.naver.com/yangrim1904>) 게시판에 올려진 자료집을 확인하고 과제를 게시판에 올립니다.

-----절취선-----

\* 개인정보 시연(필수) - 온라인 BTS 관련 연락에 사용됩니다.

체크해주세요.	학 년	이 름	보호자 연락처
유치부 / 유년부 / 소년부			



광주양림교회의 교육부 교회학교



CBN  
KOREA  
The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그림 18> 'BTS' 참가 신청서

아이들의 특성상 가만히 앉아서 듣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활동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종이접기나 만들기, 레시피를 통한 요리 만들기, 나노블록 등의 놀이를 통해 성경을 배워가는 시간으로 꾸몄다. 이 시간은 아이들만의 시간이 아니다. 교사들도 직접 줌(zoom)에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고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통해 심방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림 19> 교육부서 'BTS' 줌(zoom) 활동 장면

## 제 V 장

### 평가

#### 1. 긍정적 측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마쳤을 때, 대부분의 성도가 어렵지 않게 대면예배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성도들의 절반이상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한번도 온라인 기반의 교회 사역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속한 교회의 실시간 예배실황 조회수만 보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도 그 숫자를 넘길 만큼의 조회수를 매주 기록해 왔다. 처음부터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목회자들이 직접 연락을 하고 성도들을 찾아가 도움을 드리며 참여하도록 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종식된 지금, 성도들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도가 대면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대면예배를 통해 성도들과 만나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목회자들이 열심히 영상을 통해 성도와의 만남을 지속해줘서 그동안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다’ 는 것이었다. 디지털 문명의 발달로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성도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온라인 예배는 물론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라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온라인 사역들을 통해 예배는 물론 신앙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현장에서는 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면 예배로 돌아선 지금까지 교회 활동에 활용하고 있고, 이전과는 달리 온라인을 병행함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는 단지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였다는 것을 넘어 새로운 관점에서 예배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필자가 속한 교회만이 아니라 지난 21년 8월 목회데이터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 후 예전처럼 현장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이 78%를 차지했다. 그만큼 성도들이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점은 코로나가 기승이던 20년 12월에 비해 21년 6월 조사한 결과에서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번갈아가며 드리겠다는 비중이 12%에서 15%까지 상승하였다.<sup>86</sup> 이는 온라인예배가 가진 공간의 제약성을 넘어선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형편상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같은 연구조사에서 가나안성도의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률을 조사했더니 무려 61%에 해당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온라인 교회에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sup>87</sup> 필자는 이 부분이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을 다시금 현장으로 인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미 자리는 마련되어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sup>86</sup>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종식 후, '예전처럼 주일 현장 예배드리겠다' 78%,” 「넘버즈」 108 (2021. 8. 20), 4.

<sup>87</sup> Ibid, 9.

강제적으로 시작해야 했던 온라인 예배이지만 오히려 기회로 바뀌 교회를 떠난 이들이 결국에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2. 부정적 측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약화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1년 6월 기준 코로나 19 이후 신앙 수준이 떨어졌다는 응답이 30%에 이른다.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신앙 수준으로 보면 기존에 신앙이 약했던 성도들은 코로나 19 를 지나면서 신앙이 더욱 약화되었다는 응답이 35%, 신앙의 수준이 높았던 성도들은 코로나 19 를 지나면서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이 45%에 이른다.<sup>88</sup> 이는 온라인 예배가 갖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온라인에서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친밀감과 소통을 느낄 수가 없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도와 찬양, 신앙서적,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새신자나 아직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는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역에 쉽사리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각 연령별, 세대별, 신앙 수준에 알맞은 콘텐츠 개발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또한 전문적인 콘텐츠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발에 관심을 갖기에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업체들이 콘텐츠 개발에 온 정성을

---

<sup>88</sup> Ibid, 5.

쏟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 제 VI 장

### 나가는 말

코로나 19는 우리의 생활 방식에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교회도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모이는 것이 제한되고,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금지되었다. 예배 또한 방역 수칙에 따라 제한된 인원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확진자가 급증할 땐, 더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멈출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제작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온라인을 통해 예배와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온라인 예배 초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가 옳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다. 몇몇 목회자들은 비대면 예배가 종교 탄압이라고 까지 하였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모임이 성도들은 물론,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비대면 예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난 2년의 시간동안 교회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흑시모를 감염의 위험 때문에 여전히 현장에서 모이는 것보다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가 거의 해소된 지금까지도 현장에 모이는 것을 꺼려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교회들은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온라인 사역'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사실 코로나 19가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온라인 기반의 사역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전국민의 90%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되고 있다. 이제 시간에 맞춰서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상기기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생활이 가능할 만큼 문명이 발달되어 가고 있다. 교회도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세상을 쫓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발맞추어 성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예배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연 온라인 예배는 옳은가?'라는 질문에 필자는 '옳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이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는 이뤄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국한하지 않으신다. 어디에도 계시고 안계신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온라인을 통한 예배로 전환해야 했다.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 신앙이 약해질 것을 걱정하였다.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을 무렵 많은 성도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영상을 재생시켜놓고 각자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화면을 보면서 하는 찬양이 익숙하지 않아 시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 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성도들 역시 초반과는 다르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다.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사역 또한 마찬가지였다. 만남이 제한된 동안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심방을 여러 방법들을 통해 직접 만나진 않더라도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었다. 신앙 교육

또한 현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신앙 교육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교회는 성도들이 어디서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도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정성껏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온라인에서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온라인만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다. 온라인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직접 만남으로 경험하는 스킨쉽에 익숙하다. 함께 만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며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교제한다.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다. 하지만 온라인 안에서는 이러한 스킨쉽을 경험할 수 없다. 교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온라인 안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성도들이 신앙 성숙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모든 성도가 스스로 신앙을 지켜낼 수 없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성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래 전 세상의 문화는 교회가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세상에 비해 너무도 뒤쳐져 있다. 여전히 2~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온라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왔다. 교회들은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배의 환경과 형태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임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심어주지 않으면, 온라인 예배는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악화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길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해야 한다. 이것은 온라인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다면, 온라인 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한국교회는 잘 이겨내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온라인은 새로운 선교의 장이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역들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온라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온라인과 현장이 균형되게 이뤄진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참고논문

정주호, “현 시대가 요구하는 예배의 형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장신대학교)

한춘기, “예배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연구” (총신대논총, 총신대학교)

류지성, “예전 안에서의 치유적 요소 연구 : 초대교회 예배 연구” ,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박해정, “성만찬과 성유식이 함께 있는 치유예배” ,(서울:한국실천신학회,2007),

손윤탁, “선교교육의 기초 이론과 실제” , (선교와 신학 27집)

박해정,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예배에 관한 고찰” , 『신학과

세계』 98호(2020)

정재영, “종교 세속화의 한 측면으로서 소속 없는 신앙인들에 대한

연구” , 『신학과 실천』 39 (2014)

함영주,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기반 블록형 코딩을 활용한 기독교교육

콘텐츠 개발모형연구” , 『신학과 실천 74』 (2021)

### 참고서적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1999)

박은규, 『21세기의 예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 출애굽기』 (서울: 제자원,

2006)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 야고보서, 요한서신,

유다서』 ,(서울: 제자원, 2006)

- 문희석, 『하나님의구속역사』 (서울: 보이스사, 1973)
-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 김소영, 『현대예배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제임스 F. 화이트, 『기독교 예배학 입문』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0)
- 조병호, 『통하는 레위기』 (서울: 통독원, 2018)
- 로버트 E. 웨버, 『예배학(Worship-Old and New)』, 김지찬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 로버트 E. 웨버, 『예배학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의 구현)』,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알렉산더 슈메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이종태 옮김, (서울: 복 있는사람, 2008)
- 박해정, 『빛을 따라 생명으로』 (서울: 동연출판사, 2016)
- 조기연, 『묻고 답하는 예배학 Cafe』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박노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예식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노르만 E. 하퍼, 이승구 옮김, 『현대기독교교육』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 김득중, 『성서주석 누가복음(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김기태·박진석 외, 『디지털시대의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한들출판사, 2017)
- 김정, 『초대 교회 예배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 유지혜, 『우리 교회 온택트 주일학교』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1)
- 앤디 스탠리, 이종순 역,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서울: 디모데, 2007)

Andrew Hill, *Enter His Courts With Praise*(Eastbourne: Kingsway Publication, 1998)

Paul W. Hoon, *The Integrity of Worship*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1971)

Tersa Berger,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 안선희 역,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Nathan D. Mitchell, *Meeting mystery: liturgy, worship, sacraments*, 안선희 역, 『예배, 신비를 만나다』 (서울: 바이북스, 2014)

#### 잡지, 신문기사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넘버즈 69호(2020)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SBS 8시 뉴스, “ [끝까지 판다②] 거리에 깔린 십자가...새길 찾는 목사들”, (2020.10.15)

KBS 뉴스,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 · · · 보급률 1위 국가는?”, (2019.02.11)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 넘버즈 42호(2020. 4. 9)

목회데이터연구소,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넘버즈 49호(2020. 5. 29)

지구촌교회, “2021 글로벌 셀컨퍼런스: (1) 코로나 시대, 왜 셀교회인가?” (2021.5.26)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종식 후, '예전처럼 주일 현장 예배드리겠다' 78%”,

넘버즈 108호(2021. 8. 20)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Daeho Oh

Place and Date of Birth: Jangseong-gun, Jeollanam-do, South Korea, July 6, 1984

Parent`s Names: Soojoong Oh / Youngsuk Kim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Jangsung High School</b> 63, Yeongcheon Wolsan-gil, Jangseong-eup, Jangseong-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3, 2003
Collegiate: <b>Honam Theological University</b> 77, Jejung-ro, Nam-gu, Gwangju, Republic of Korea	B.A	Feb 10, 2009
Graduate: <b>Honam Theological University</b> 77, Jejung-ro, Nam-gu, Gwangju, Republic of Korea	M.div	Feb 14, 201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Daeho Oh

Name typed

March 15. 2023

Date